

鳳停寺大雄殿・同寺極樂殿・安東東部洞五層塔・銀海寺居祖庵靈山殿・安東陶山書院尙德祠・寶鏡寺圓眞國師碑・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龍門寺大雄殿・開目寺圓通殿・雲門寺圓應國師碑・安東石水庫・瞻星臺實測・鮑石亭址・佛國寺環境整理・桐華寺環境整理

(全南)

雙峰寺大雄殿・鎮南館(第一次)・松廣寺國師殿・同寺藥師殿

(全北)

廣寒樓・金山寺彌勒殿・禪雲寺大雄殿・來蘇寺大雄殿・實相寺秀澈和尚楞伽寶月塔碑・同寺藥師殿

(江原道)

江陵海雲亭・三陟竹西樓丹青・江陵客舍門・寧越銀杏나무 (天然記念物第七號保存策)

印度通信(一)「뉴·델히」에서

黃 壽 永

이곳은지 一週일이 지났습니다. 「뉴·델히」로 直行하려던 豫定을 變更하여 十二月二十五日 「칼카타」에서 印度땅을 밟게 된것은 「바마」에서의 「과간」(PAGAN)行이 實現되지 못하였던것과 「칼카타」의 博物館을 보고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벤갈」灣을 橫斷하여 恒河下流가 보였을 때와 晝夜 十時 「뉴·델히」의 아름다운 夜景이 空中에서 보였을 때는 혼자서 興奮하기도 하였읍니다. 이곳 와서의 첫 印象은 큰大陸에 왔다는 것과 宗教와 傳統의 強靱性이라 하겠읍니다. 그리고 되풀이하는 것은 늦게 나마 떠나 온것이 多幸이라는 것입니다. 平生에 한번 오고 싶었던 땅이었기 때문인지 모든것이 珍奇하기만 합니다. 氣溫은 「바마」와는 달라서 지금이 嚴冬이라고 하는데 霧上一度가 最低였읍니다. 코트와 털옷을 가져 온것이 多幸이었읍니다.

到着된 다음날부터는 國立博物館에 다니는 것이 日課가 되었읍니다. 陳列品中 에서도 石造彫刻과 SIR STEIN의 中央亞細亞遺物이 注目되었으며 그 壁 畫는 三室에 나누어 잘 保存되고 있었읍니다. 그 사이 科學文化省의 A·K·G

HOSH氏도 訪問하였고 Director General of Archaeology의 GOSH氏 國博의 PURI氏도 만났는데 모두 歡迎하여 주었고 많은 便宜를 提供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칼카타」에서 入國할때는 金調査도 없었는데 韓國에 對한 好意가 中共侵入以來 漸増하고 있는 것도 느낄수 있었읍니다. 그 사이 兩日에 걸쳐서 新舊「델히」의 옛 首都當時의 古蹟도 찾아 보았는데 大部分이 十三世紀以來 印度를 支配하였던 「모스LEM」帝國의 陵墓와 城廓과 寺院과 같은 權威의인 建造物로서 印度 「이슬람」樣式의 標本들이라고 합니다. 그 中에서도 征服의 記念塔이라고 할수 있는 巨大한 尖塔(OUTBMINAR)은 十三世紀의 建立으로서 「힌두」寺院을 破壞한 터에 建立되었다고 합니다. 城廓으로서 是 Red Fort가 規模를 간직하고 있는 바 大部分이 紅色砂岩을 使用하였고 一部 建物만 白大理石인데 흰바탕에 各色的 寶石으로서 花文을 象嵌한 手法이 注目되었읍니다. 一月一日에는 印度의 父라고 일컫는 「간디翁」의 墓所를 찾았는데 儉素한 靈樞에 參拜하는 男女老少의 모습은 感銘 깊었읍니다. 이곳이야 말로 印度의 새로운 聖地로서 그가 暗殺된 「힌두」敎寺院과 더불어 外人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곳와서 처음 맞은 日曜日(十二月三十日)에는 約三百六十里 떨어진 南方의 마투라(MATHURA)로 博物館을 찾아 갔읍니다. 印度古代彫刻史의 中心地이며 동서에 「힌두」敎의 聖地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陳列되어있는 大小數百의 彫刻(紀元前三世紀頃부터 紀元後十世紀) 그 中에서도 貴霜(Kushana)期에 해당하는 「마투라」彫刻品과 後의 笈多(Gupta)期作品은 매우 注目되었읍니다. 이날은 陳列室에 熱中하다가 點心도 못먹고 夕陽에 「뉴·델히」로 돌아왔읍니다. 사진만 보고 理解하려던 努力이 이 고장에 와서 實物을 相對하니 조금씩 理解가 되어 가는 듯도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특히 우리 것과 關聯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攝影과 記錄도 하고 있습니다. 參考文獻같은 것은 Archaeological Survey 또는 國博에 各其 附屬된 圖書室에서 쉽게 얻어 볼수 있습니다. 韓國에서 처음 왔다고 하며 佛敎美術을 研究한 다기에 신기하게 여기는 모양 매우 親切히 하여 줍니다. 一月六日에 出發기로 되어 있는 約三個月旅行의 計劃인 이곳 Archaeological Survey의 次長 K·DEVA氏가 直接 作成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三三日부터 四·五日이 되겠사는데 第一次로 北印의 恒河流域을 中心으로 佛蹟과 博物館을 고루 찾게 되었읍니다. 아직 익숙하지 못한 땅에서 긴장이 가장 엄려되 는 바 이온데 저녁에는 일찍부터 就寢키로 하였읍니다. 印度음식도 이곳서는 먹을만 합니다. 새벽에 추위로 잠을 깨우는 以外에는 별로 不便한 것이 없읍니다.

新鮮한 果實에서 榮養을 찾기로 하였는데 그 값만은 매우 싸서 一루비(우리의 약 二五圓)로 「바나나」 八개와 「네불」 三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곳 우리 公館도 最近에 事務室이 安定 되었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韓印間에 教授와 留學生의 交換計劃이 實現되기를 바라고 있어온데 그 때에는 누가 이 方面의 研究를 위하여 二, 三年 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짧은 期間이나마 이 땅에서 여러 곳을 찾게 된 것을 즐겁게 여기고 있습니다. 新正을 맞이하여 同人여러분께 人 事를 드립니다. (一九六三·一·二一)

南大門通信(六)

金正基

一、 지난 十二月 二七日 午後 二時 上樑式을 舉行하였는바 最高會議社社委員長 및 鄭文社委員, 文教部長官, 서울特別市長, 文化財管理局長 등 關係機關의 責任者 와 文化財保存委員會를 비롯하여 從來 南大門重修工事に 關係있던 多數人士께서 參席하였다. 新年에 들어서서 七日부터 殘餘의 木部細部工事を 進行할 豫定이었으나 連日의 酷寒에 萬全을 期하기 위하여 工事を 中止하고 있다.

한편 丹青材料 購入에 關聯하여 品質鑑定을 金基昶氏를 비롯한 斯界의 權威者 五人에 依하여 見本을 鑑定하였으며 더욱 完全을 期하기 위하여 現在 國立工業 研究所에 依賴하여 品質의 分析調査를 進行中에 있다.

新製한 蓋瓦는 方博을 除外한 大部分이 昨年末부터 入荷되었으며 그 品質調査의 一環으로 國立工業研究所에 依賴하여 蓋瓦의 吸水率을 調査하여 吸水率로서는 理想的인 結果를 얻어 入荷全部의 檢收가 끝났다. 檢收에는 蓋瓦에 經驗이 많은 柳海宗氏(石窟庵補修工事現場監督官)의 指導下에 이루어졌다.

雙峰寺通信(二)

申榮勳

B、內高柱(心柱)

內高柱(高三·三五尺 徑一·四〇一尺)는 二, 三層을 結構하는데 가장 中心이 되는 部材로 各層春舌의 뒷몸이 結索되고 四隅의 各部材와 連結되어 建物の 荷重을 重點的으로 支撐하도록 意圖된 것이다. 더욱이 各栱包의 後端위에 올려놓은 平枋形의 積材材를 荷重으로 짓누르고 있어 처마의 荷重으로 因하여 栱包의 先端이 傾斜되는 傾向을 抑制하고 있으며 柱身의 動搖나 逸脫을 防止하기 위하여 各種의 施設을 하였다. 그러나 近來 補修時 原意圖를 忘却하고 恣意로 變形시켰기 때문에 이들의 副屬品들은 제대로의 구실을 發揮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의 連繫가 不充分하였기 때문에 現在와 같은 攪亂된 事態가 惹起되었으므로 再建時는 徹底한 이 部分의 復原 乃至 補強이 施行될 必要가 있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注意하여 復原方案을 檢討하게 되었으니 그 內容은 下記 各項과 같다.

(1) 上端部分

A項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宗道里及合閣部分은 後補物임이 判明되었고 本來에는 三層四隅의 春舌 뒷몸 모두어 깨어지도록 되었었음이 밝혀졌다. 心柱上端에 他架構없이 이것만으로 끝났다면 지금과 같은 팔각지붕을 꾸밀 수는 없고 지붕골이 한곳에 모여지는 샷샷형의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法住寺捌相殿의 五層屋蓋形態를 連想하게 되는데 지금 心柱에는 그와 같은 相輪이 놓였던 흔적은 없다.

(2) 連接部分

心柱는 二本이 連接된 長尺物인데 下部物은 길고 윗것은 짧다. 이음새는 凸凹形으로 上下를 加工하여 끼우고 산지를 큼직하게 아래위로 띠아 固定시켰다.

(3) 其他副屬物

上部로부터 ①五·九尺 ②八尺·③四尺 ④二·七尺長의 角木이 ①과 ②·③과 ④가 各十字形을 이루도록 엮매겨 깨어져 있는데 ①과 ②의 間隔은 三·九二尺이고 ②와 ③은 三·五尺이며 ④는 下端溝(雙孔長八·三寸 幅四·二五寸) 위에 位置하고 있다. 이들은 一層 栱包後端上에 積置한 平枋木을 비롯하여 各層의 同一部位에 位置하도록 된 것인바 모두 前記한 바와 같은 荷重의 處理를 意圖한 것이고 最下位의 溝에는 平行木을 깨어 一層道里目에 놓인 시렁(亦是 平行木)에 놓여 心柱의 下降을 抑制하도록 되었다. 此外 ②와 ③의 사이에 方形 溝가 透孔되어 있는데 아무런 裝置가 없다. 用途는 未詳이나 亦是 動搖를 防止하려는 意圖로 加工된 것인 듯하다. 此 副屬物 間에 春舌 뒷몸을 깨이는 方形 溝가 透孔되어 있다.